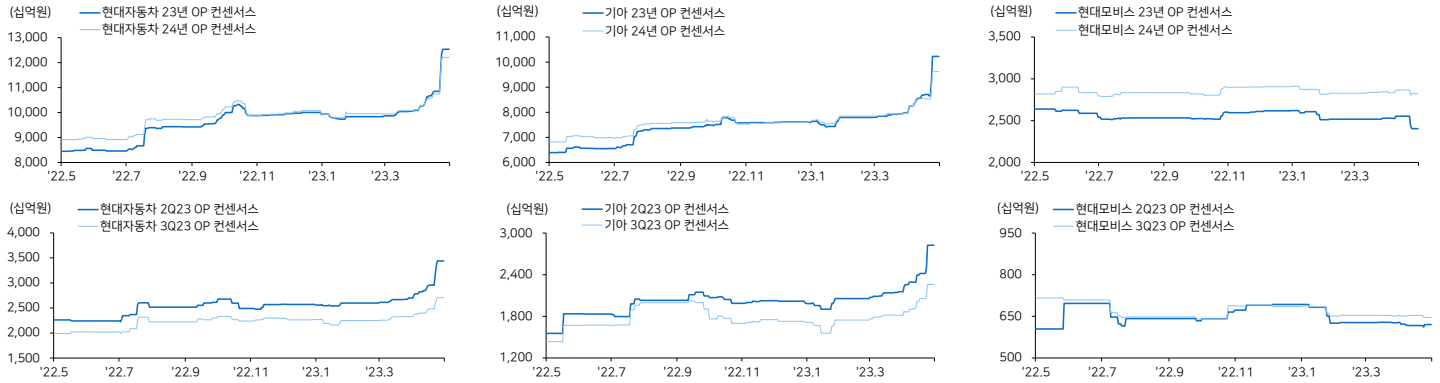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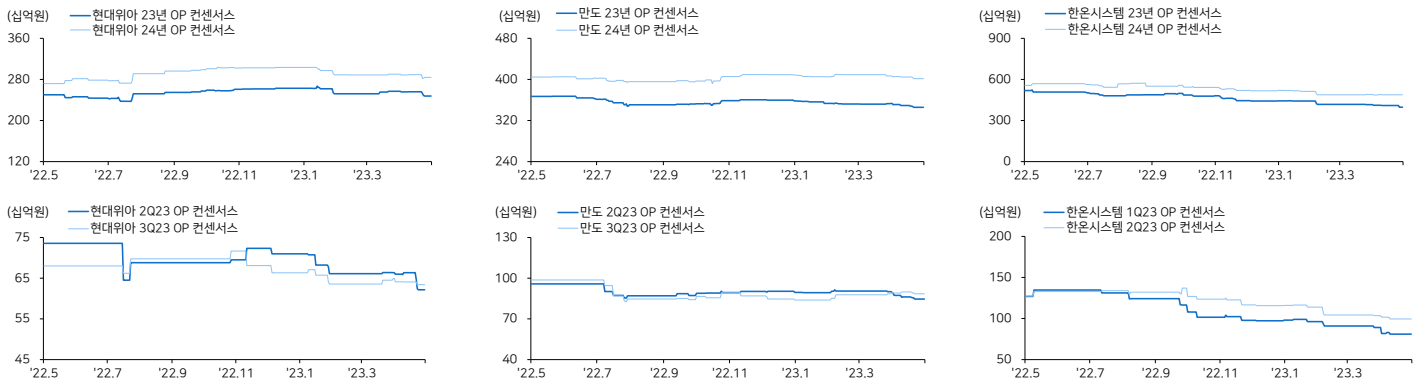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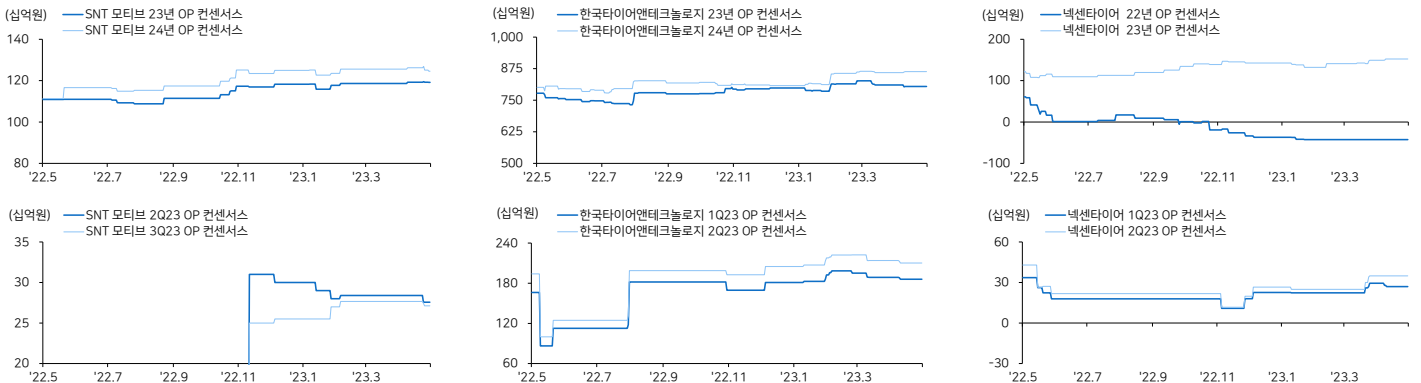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美 전기차 리스 3배 증가...현대차·기아, 하반기 반등 기대감 '술술' (아시아투데이)

미국에서 전기차 전체 구매 고객 중 리스 구매 비중이 지난해보다 3배가량 증가.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전기차 판매 감소를 막기 위해 내놓은 리스 확대 전략이 현지에서 긍정적인 반응. 하반기에도 높은 리스 비율 기반으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https://bit.ly/41DOWNNM>

폭스바겐, 3000만원 이하 전기차 출시...中 공략 속도 (아시아경제)

올리버 블룸에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빌트잡종탁과의 인터뷰에서 "2만 유로(약 2915만원) 안팎의 전기차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유용하고 의미 있는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
<https://bit.ly/3lchLn5>

Stellantis hits the brakes on Canadian EV battery plant over federal funding (electrek)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연방정부와의 자금조달 이슈를 이유로 캐나다 원자 지역에 계획된 EV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 해당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합작사로, 연간 45GWh의 생산능력에 투자금액 약 41억 달러로 알려졌다.
<https://bit.ly/42Bh3wD>

Ford says it will reduce costs to boost China business (Reuters)

포드는 중국 시장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 지난 중 중국 현지 언론은 GM이 중국에서 1,300명의 일자리를 삭감할 계획이라고 보도. 포드의 중국사업부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언급.
<https://reut.rs/3W821fg>

한국차, 세계최대 인구 대국 '국민차' 됐다...5대중 1대는 현대차·기아 (매일경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인도에서 성장세를 지속 중. 올해 1~4월 현대차·기아의 인도 현지 판매량은 295,359대로, yoy 15.5% 증가. 시장 점유율은 21.7%를 기록.
<https://bit.ly/3nW3YPn>

무려 6700만대... 현대차·GM 덮친 '에어백 리콜' 그림자 (머니S)

NHTSA는 에어백 팽창기 제조사인 'ARC 오토모티브'의 제품에 안전 결함이 있어 리콜 결론을 내리고 이를 해당 업체에 통보. 해당 부품은 GM, VW, 현대차 등 12개 자동차업체들에 2001년부터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bit.ly/3l8TS11>

US consumers keep vehicles for a record 12.5 years on average -S&P (Reuters)

올해 미국 승용차의 평균 수명은 2022년 발생했던 공급 제약과 올해 높은 금리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해 12.5년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BEV의 평균 수명은 2022년 3.7년에서 올해 3.6년 수준으로, 몇 년간 3~4년 수준을 유지 중.
<https://reut.rs/42WT20b>

Can this Chinese startup become a top 3 premium EV maker? (electrek)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ZEEKR는 2030년 이전에 유럽 상위 3위의 프리미엄 BEV 브랜드를 목표로 '제품, 고객 경험'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며, 소비자를 위한 충전/금융/보험/유지보수 패키지 등을 포함한 '원스톱 쇼핑' 접근법을 고려.
<https://bit.ly/3MaEA02>